

2021년 8-1

KIET 경제산업동향

2021. 8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록 >	
최근 글로벌 투자 동향과 향후 여건 점검 [한국은행 (2021.7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미국 2분기중 전기비 6.5%, 중국 전년동기비 7.9% 성장

- 미국은 6월 경제지표들이 부문간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2분기중 개인소비와 설비투자의 동반 확대가 이어지면서 실질GDP는 6.5% 성장
- 일본과 유로존은 5월 실물지표들이 부진 내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2021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4.0% → 3.8%로 하향한 반면에, EU 집행위는 유로존의 역내 성장률 전망치를 4.3% → 4.8%로 상향
- 중국은 6월에도 주요 내수 지표들이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2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비 7.9%로 현저한 둔화세를 시현
- 달러화는 지난 7월중 약세를 보인 이후 8월 들어 델타 변이 확산 우려와 연준 관계자들의 테이퍼링 가능성 시사 발언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
- 유가는 7월 중순 이후 달러화 약세 등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8월 들어서는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와 델타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다시 하락 전환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전기비 0.7%, 6월 전산업생산 1.6% 증가

- 올 2분기 국내 실질GDP는 소비 확대 영향에도 투자 둔화와 수출 감소 등에 따라 전기비 성장률이 0.7%로 하락, 전년동기비 기준 5.9% 증가
 - 지난 6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이 동반 증가세로 전환된 데 힘입어 전월비 1.6%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를 회복

□ 금 융 : 6월 기업대출 둔화 지속·가계대출 확대, 8월 초순(8.2~8.10 일) 금리 보합 및 원/달러 하락세

- 6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규모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기타대출이 감소하면서 전월과 달리 감소

- 국고채(3년) 금리는 7월말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순매수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은 7월중 1,150원대까지 상승한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안정세 속에서 1,140원대로 소폭 하락

□ 산업별 동향 : 6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장비 등 다수 업종에서 상당 폭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12.1% 증가
 - 제조업ICT와 중공업 생산은 두 자릿수 증가율, 경공업은 견조한 증가세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에서 감소 폭이 축소되고, 도소매, 운수·창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에서 전월보다 증가한 데 힘입어 4.9% 증가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5.3% 증가, 전월비 기준 7.5% 증가

□ 고용 : 6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2% 증가

- 지난 6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에, 제조업에서 전월과 달리 감소세를 보이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하락(2.3% → 2.2%)

□ 수출입 : 6월 수출 +29.6%, 수입 +38.2%, 무역흑자 18억 달러

- 지난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9.6% 증가한 554억 달러, 수입은 38.2% 증가한 537억 달러로, 무역흑자 규모는 18억 달러를 기록
- 품목별로는 글로벌 경기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반도체와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에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가 상승으로 석유 관련 품목들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주요 지역들에 대한 수출도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4개월 연속 약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

1. 해외경제

□ 미국 : 6월 경제지표 혼조 지속, 올 2분기중 내수 확대로 6.5% 성장

○ 6월중 생산 둔화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부문간 혼조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 역시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경제지표들의 부진세가 지속. 올 2분기 실질GDP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의 동반 확대로 전기비 6.5% 성장

- 산업생산은 IT(0.6%) 생산 둔화와 자동차·부품(-6.6%)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6% 증가하면서 정부의 현금 지원책(1.3월) 소멸 영향에서 일시 벗어난 모습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생산 확대에도 신규 수주와 고용이 동반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과 달리 하락한 반면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의 상승세와 미래 기대지수의 상승 전환으로 상당 폭 상승
-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제조업에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6개월 연속 증가한 반면에,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비 상승률이 4개월 만에 0%대로 둔화
- 올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개인소비(전기비 11.8%)와 설비투자(13.0%)의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기비 6.5%(전년동기비 12.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3	-3.4	4.5 (-2.3)	6.3 (0.5)	6.5 (12.2)				
산업생산 (IT생산)	-0.8 (3.9)	-7.2 (7.1)	2.0 (4.6)	0.9 (3.5)	1.4 (3.7)	2.7 (1.7)	0.0 (1.0)	0.7 (1.3)	0.4 (0.6)
내구재수주	3.5	-13.6	4.7	5.5	3.0	1.3	-0.7	3.2	0.9
소매판매	3.3	0.3	0.4	8.0	6.2	11.3	0.9	-1.7	0.6
소비자물가	1.8	1.2	0.6	0.9	2.0	0.6	0.8	0.6	0.9
실업률(%)	3.7	8.1	6.8	6.2	5.9	6.0	6.1	5.8	5.9
무역수지(10억US\$)	-576.3	-676.7	-196.8	-212.8	-215.8	-75.0	-69.1	-71.0	-75.7
ISM 제조업지수 ¹⁾	51.3	52.5	59.1	61.4	60.8	64.7	60.7	61.2	60.6
소비자신뢰지수 ²⁾	128.3	100.9	93.4	96.1	62.3	109.0	117.5	120.0	127.3
경기선행지수 ³⁾	111.6	106.1	109.0	110.6	114.1	111.6	113.0	114.3	115.1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5월 생산·소비 동반 감소, BOJ 2021년도 성장률 3.8%로 하향

- 지난 5월 생산은 상당 폭의 감소를 보이고, 소비 역시 소폭이나마 감소세를 보이면서 실물지표들의 부진세가 이어진 가운데 경기선행지수가 2020.5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 일본은행(BOJ)은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유지를 평가하면서 2021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0% → 3.8%로 하향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실질GDP)	0.0	-4.7	5.3	2.8	-1.0				
광공업생산	-2.7	-10.6	9.0	5.7	2.8	-1.3	1.7	2.9	-6.5
민간기계수주	-0.9	-8.5	-0.3	12.9	-5.3	-8.5	3.7	0.6	7.8
소매판매	0.1	-3.5	8.2	0.1	0.4	3.1	1.2	-4.6	-0.3
소비자물가	0.5	0.0	0.0	-0.6	0.5	0.1	0.2	-0.4	0.3
실업률(%)	2.4	2.8	3.0	3.0	2.8	2.9	2.6	2.8	3.0
무역수지(10억엔)	-1,668	563	881	1,959	542	212	658	249	-189
경기선행지수 ¹⁾	93.9	89.0	90.0	96.6	100.0	99.2	102.4	103.8	102.6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6월 내수 지표 둔화세, 2분기 성장률 7.9%로 현저한 하락세

- 6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전월에 이어 둔화세를 보인 반면에, 수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하락.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현저히 낮은 7.9%를 기록한 가운데 인민은행은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기준을 인하(-0.5%p)를 시행(7.15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실질GDP)	6.0	2.3	6.5	18.3	7.9				
산업생산	5.7	2.8	7.1	24.6	9.0	14.1	9.8	8.8	8.3
고정투자(누계기준)	5.4	2.9	2.9	30.3	12.6	25.6	19.9	15.4	12.6
소매판매	8.0	-3.9	4.6	34.0	14.1	34.2	17.7	12.4	12.1
소비자물가	2.9	2.5	0.1	0.0	1.1	0.4	0.9	1.3	1.1
수출(달러화기준)	0.5	3.6	16.9	45.6	30.8	30.6	32.3	28.0	32.2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5월 실물지표 혼조 지속, EU 집행위 성장률 전망치 상향

- 지난 5월 역대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부문간 혼조세가 이어지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8.10월 이후 최고치. EU 집행위는 유로존 경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상향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4	-6.5	12.6	-0.6	-0.3				
산업생산	-1.3	-8.4	16.2	4.3	1.1	-1.3	0.5	0.6	-1.0
소매판매	2.4	-1.0	10.4	-1.3	-1.5	4.3	4.0	-3.9	4.6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0.3	0.0	-0.3	1.1	0.9	1.3	1.6	2.0
무역수지(10억유로)	223.0	235.0	62.3	75.8	69.5	23.5	17.9	13.4	9.4
경기체감지수 ¹⁾	107.3	88.7	90.4	89.8	92.6	90.9	97.8	107.2	110.0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상승 & 유가 하락 전환

- 달러화는 지난 7월 연준의 FOMC 회의(27~28일)를 전후로 미국 국채금리 하락세와 함께 동반 약세를 보이고, 8월 들어서는 델타 변이 확산 우려와 연준 관계자들의 테이퍼링 가능성 시사 발언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
- 유가는 7월중 산유국들의 감산 완화 합의 등으로 급락세를 보인 이후,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수요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8월 들어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와 델타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다시 하락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0		2021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10일
엔/달러	104.31	103.25	104.68	106.57	110.72	109.31	109.58	111.11	109.72	110.57
달러/유로	1.1927	1.2216	1.2136	1.2075	1.1730	1.2020	1.2227	1.1858	1.1870	1.1720
미 국채 (10년만기)	0.84	0.91	1.07	1.40	1.74	1.63	1.59	1.47	1.22	1.35
WTI유	45.3	48.5	52.2	61.5	59.2	63.6	66.3	73.5	74.0	68.3
두바이유	46.6	50.2	54.3	63.1	62.4	64.5	66.6	73.0	73.3	68.1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0.7% 성장, 6월 전산업생산 1.6% 증가

○ 올 2분기 국내 실질GDP는 소비 확대 영향에도 투자 둔화와 수출 감소 등에 따라 전기비 성장률이 0.7%로 하락, 전년동기비 기준 5.9% 증가

- 민간소비가 전기비 3.5% 증가하면서 전분기(1.2%)보다 크게 확대된 반면에, 설비투자가 0.6% 증가에 그치고, 건설투자도 2.5% 감소한 데다, 수출도 2.0% 감소하는 등 전분기에 비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시현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GDP성장률	2.2	-0.9*	-1.1* (1.1*)	1.9* (1.7*)	5.9** (0.7**)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1	-5.0*	-6.6* (-1.3*)	1.2* (1.2*)	3.6** (3.5**)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6.6	7.1*	6.1* (-0.6*)	12.4* (6.1*)	12.2** (0.6**)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7	-0.4*	-2.9* (3.5*)	-1.8* (1.3*)	-1.5** (-2.5**)	-	-	-	-
전산업생산지수	1.0	-1.2	-1.5 (1.6)	2.7 (1.7)	7.3* (0.4*)	5.8 (0.9)	8.5 (-1.3)	7.0* (0.0*)	6.7* (1.6*)
광공업생산지수	0.4	-0.4	0.0 (2.9)	4.4 (3.4)	13.0* (-1.0*)	4.6 (-0.7)	12.2 (-1.9)	14.9* (-1.0*)	11.9* (2.2*)
제조업생산지수	0.5	-0.3	-0.1 (3.1)	4.4 (3.4)	13.4* (-1.1*)	4.7 (-0.8)	12.8 (-1.9)	15.3* (-1.2*)	12.1* (2.3*)
서비스업생산지수	1.4	-2.0	-2.0 (0.9)	2.2 (0.7)	5.7* (1.7*)	7.8 (1.3)	8.3 (0.2)	4.2* (-0.4*)	4.9* (1.6*)
소매판매액지수	2.4	-0.2	-1.2 (0.9)	6.4 (1.7)	4.4* (2.7*)	11.1 (2.5)	8.7 (2.1)	3.1* (-1.8*)	1.6* (1.4*)
설비투자지수	-5.7	6.0	2.8 (0.8)	11.9 (6.9)	12.4* (0.4*)	9.6 (0.1)	16.4 (3.1)	10.9* (-2.9*)	10.0* (-0.2*)
건설기성액	-2.3	-4.1	-5.3 (2.5)	-7.2 (-3.6)	-4.4* (-1.6*)	-5.6 (0.4)	-3.6 (-2.6)	-6.9* (-3.0*)	-3.1* (2.0*)
동행종합지수(2015=100)	112.0	112.3	113.6	114.4	116.6*	115.1	116.4*	116.7*	116.9*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1	98.7	99.4	99.8	101.3*	100.2	101.2*	101.4*	101.4*
선행종합지수(2015=100)	114.6	119.5	122.5	124.7	127.1*	125.3	126.3*	127.2*	127.9*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9.5	100.5	101.9	102.9	104.1*	103.2	103.7*	104.1*	104.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지난 6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이 동반 증가세로 전환된 데 힘입어 전월비 1.6%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를 회복
 - 광공업생산은 제조업에서 증가세(전월비 2.3%)를 회복함에 따라 전월비 2.2%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도 2개월 만에 증가(1.6%)
 - 소매판매는 내구재(-1.0%)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준내구재(5.8%)와 비내구재(1.0%) 판매가 동반 증가하면서 전월비 1.4% 증가한 반면에, 설비투자는 기계류(-1.5%) 감소와 운송장비(3.3%) 증가로 전월비 0.2% 감소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과 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함에도 비농림업 취업자수와 서비스업생산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월비 0.3% 상승하고, 선행종합지수도 건설수주액이 감소한 영향에도 경제심리지수와 코스피지수 등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0.6% 상승(15개월 연속 상승세)

□ 물가 : 7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2% 상승, 전년동월비 2.6% 상승

- 7월 소비자물가는 주택·수도·전기·연료(전월비 -1.3%)가 비교적 크게 하락한 영향에도 식료품·비주류음료(-0.1%)가 소폭 하락에 그치고, 교통(1.5%)과 음식·숙박(0.4%) 등에서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2% 상승(전년동월비 2.6%)
- 6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전월비 -1.2%)에서 소폭 상승 전환되고, 서비스(0.2%)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영향에도, 공산품(0.6%)에서 상승폭이 현저히 둔화되면서 전월비 상승률이 0.4%로 하락(전년동월비 6.4%)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소비자물가	0.4	0.5	0.6 (0.6)	0.4 (0.1)	1.1 (1.2)	2.5 (0.5)	1.5 (0.1)	2.3 (0.2)	2.6 (0.1)	2.4 (-0.1)	2.6 (0.2)
근원물가	0.9	0.7	0.8 (0.2)	0.7 (0.0)	0.9 (0.6)	1.4 (0.6)	1.0 (0.1)	1.4 (0.3)	1.5 (0.3)	1.5 (0.1)	1.7 (0.1)
생산자물가	0.0	-0.5	-0.6 (1.0)	-0.2 (0.2)	2.3 (2.6)	6.3* (2.4*)	4.1 (1.1)	6.0 (1.0)	6.6 (0.5)	6.4* (0.4*)	-
근원물가	0.1	-0.1	-0.2 (0.8)	0.5 (0.5)	2.4 (2.0)	6.0* (2.6*)	3.8 (0.9)	5.6 (1.2)	6.2 (0.6)	6.2* (0.3*)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6월 기업대출 둔화 지속·가계대출 확대

- 6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전월보다 더 감소하고, 중소기업 대출도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증가폭이 더 축소
(21.5월 +5.7조원 → 21.6월 +5.1조원, 대기업 -1.1조원, 중소기업 +6.1조원)
 -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등의 요인으로 전월에 이어 순상환 기조가 지속
 - 중소기업 대출도 은행·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분기말 일시상환과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전월비 증가폭이 축소
- 회사채도 투자수요 확대와 일부 대기업의 발행 재개 등으로 순발행 전환
(21.5월 -0.2조원 → 21.6월 +2.8조원)
- CP는 전월과 달리 소폭의 순발행 기조로 전환
(21.5월 -1.1조원 → 21.6월 +0.6조원)
- 주식발행은 일부 기업들의 유상증자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
(21.5월 +3.2조원 → 21.6월 +2.4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21.6월말 잔액
	1~6월	6월	1~6월	6월	1~6월	4월	5월	6월	
■ 은행 원화대출	27.8	2.1	77.7	1.5	45.8	11.4	5.7	5.1	1,022.1
(대 기업)	0.8	-2.2	24.2	-3.4	1.3	2.0	-0.8	-1.1	173.1
(중소기업)	27.0	4.3	53.5	4.9	44.4	9.5	6.5	6.1	849.0
<개인사업자>	11.4	1.7	28.7	2.6	19.4	3.8	2.3	3.2	405.4
■ 회사채 순발행	9.4	2.4	10.7	4.4	13.6	3.2	-0.2	2.8	..
■ CP 순발행	2.6	-2.4	4.2	-2.6	7.5	2.3	-1.1	0.6	30.4
■ 주식발행	3.0	0.4	2.4	1.5	14.7	0.2	3.2	2.4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6월중 금융시장 동향).

- 6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기타대출도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전월과 달리 증가세로 전환
(21.5월 -1.6조원 → 21.6월 +6.3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고, 집단 대출 취급에 따른 자금수요 등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1.5월 +4.0조원 → 21.6월 +5.0조원)
- 기타대출도 주택거래 및 생활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 증가세로 전환 (21.5월 -5.5조원 → 21.6월 +1.3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21.6월말 잔액	
	1~9월	6월	1~6월	6월	1~6월	4월	5월		6월
은행 가계대출	21.3	5.4	40.6	8.2	41.6	16.2	-1.6	6.3	1,030.4
■ 주택담보대출	18.5	4.0	32.2	5.1	30.4	4.2	4.0	5.0	752.2
■ 기타대출	2.9	1.5	8.4	3.1	11.3	11.8	-5.5	1.3	277.3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6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8월 초순(8.2~8.10일) 금리 보합, 원/달러 하락세

- 국고채(3년) 금리는 7월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인 이후,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승 (8.2일 1.44% → 8.10일 1.43%, -0.01%p)
-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중 국내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 영향으로 1,150원대까지 상승한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안정세 속에서 1,140원대로 소폭 하락 (8.2일 1,150.9원 → 8.10일 1,149.8원, -1.1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19		2020		2021				
	4/4	1/4	2/4	3/4	4/4	1/4	2/4	7월	8.10일
국고채(3년)	1.36	1.07	0.84	0.85	0.98	1.13	1.45	1.42	1.43
회사채(3년,AA-)	1.94	2.08	2.25	2.19	2.21	2.06	1.97	1.85	1.86
CD(91일)	1.53	1.10	0.79	0.63	0.66	0.75	0.68	0.70	0.71
CP(91일)	1.69	2.20	1.51	1.11	1.09	1.00	0.97	0.97	0.97
원/달러	1,156.4	1,217.4	1,203.0	1,169.5	1,086.3	1,131.8	1,126.1	1,150.3	1,149.8
원/100엔	1,063.5	1,130.8	1,116.1	1,112.1	1,054.3	1,027.3	1,022.1	1,048.5	1,037.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증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6월중 전년동월비 +12.1%, 전월비 +2.3%

○ 제조업생산은 전월과 마찬가지로 기타운송장비(전년동월비 -12.2%)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반도체(25.5%), 자동차(23.5%), 기계장비(15.9%), 화학제품(16.2%) 등 다수 업종이 상당 폭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12.1%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5.6%)와 중공업(13.8%)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공업(4.9%)은 비교적 건조한 증가세가 지속

- 전월비 기준으로는 전자부품(-0.6%), 통신방송장비(-8.9%), 기타운송장비(-5.3%), 석유정제(-3.9%)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8.6%), 자동차(6.4%), 기계장비(1.1%), 화학제품(1.2%)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2.3%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5.0)는 금속가공과 전자부품 등에서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를 비롯해 기계장비와 자동차 등 다수 주력 업종에서 상승세를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월비 1.4% 상승, 전월비 기준으로 0.1%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1.8%로 전월보다 0.9%p나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증가 폭이 더욱 확대(5.9% → 11.8%, 계절조정 기준 전년동기비)되고, 재고 역시 감소세가 확대(-3.9% → -5.2%)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9%로 전월보다 0.6%p나 상승

□ 서비스업생산 : 6월중 전년동월비 +4.9%, 전월비 +1.6%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전년동월비 -0.5%)에서 전월보다 감소 폭이 축소되고, 도소매(3.9%)와 운수·창고(9.4%), 전문·과학·기술서비스(3.2%) 등에서 전월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데 힘입어 전체 기준 4.9%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도 도소매(1.6%)와 운수·창고(1.0%), 금융·보험(3.2%), 전문·과학·기술서비스(1.9%), 교육(0.3%) 등 전월에 감소세를 보인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데 힘입어 2개월 만에 다시 증가(1.6%)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5.3%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7.5%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9년)	2019	2020		2021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6.7	106.3	112.9	109.8	114.0	114.0	111.2	116.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0.0	4.4	13.0	12.2	14.9	11.9	2.2
제조업 (원지수)	9,484.5	106.6	106.3	112.9	109.1	114.6	114.6	111.8	117.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0.1	4.4	13.4	12.8	15.3	12.1	2.3
섬 유	135.0	-5.9	-10.5	-6.2	-4.5	24.5	25.2	28.6	20.1	4.0
화 학	883.8	-1.3	-3.0	-1.2	2.8	15.7	12.4	18.7	16.2	1.2
철 강	454.3	-2.2	-6.3	-1.5	-1.9	13.3	5.9	14.2	20.8	2.4
반도체	1,285.6	11.7	22.7	12.6	21.9	27.2	29.7	26.8	25.5	8.6
컴퓨터, 주변장치	31.3	-8.0	-7.9	0.8	-3.2	9.2	1.8	17.2	10.2	-2.0
통신, 방송장비	131.5	-2.8	-11.3	2.2	28.7	41.7	52.5	53.3	21.5	-8.9
의료, 정밀, 광학	218.0	-11.0	3.9	9.8	17.0	32.5	32.4	40.1	26.0	-4.8
기계, 장비	819.2	-5.9	3.6	3.7	9.4	17.5	17.6	19.3	15.9	1.1
자동차	981.6	-0.5	-10.0	-2.9	11.2	24.5	20.0	31.5	23.5	6.4
조 선	206.3	17.6	8.6	-1.3	-15.6	-17.3	-13.8	-15.8	-21.9	-4.1
- 중 공 업	-	0.7	0.6	0.6	5.5	14.7	13.7	16.7	13.8	2.8
- 경 공 업	-	-0.6	-4.0	-2.9	-0.3	7.5	9.0	8.8	4.9	0.6
- 제조업ICT	-	4.8	11.9	8.5	14.0	19.7	22.5	21.6	15.6	3.1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8.4	106.2	110.5	105.9	110.8	109.5	109.5	113.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2.0	-2.0	2.2	5.7	8.3	4.2	4.9	1.6
도소매	211.3	-0.4	-2.6	-1.8	3.1	5.4	9.3	3.1	3.9	1.6
운수및창고	90.3	0.0	-14.2	-13.1	-2.4	11.0	14.9	8.9	9.4	1.0
숙박및음식점	61.6	-1.0	-18.5	-24.6	-13.1	1.5	8.3	-2.1	-0.5	2.7
정보통신	79.9	3.6	1.5	0.0	2.0	3.8	2.9	2.9	5.4	1.0
금융및보험	140.9	1.7	14.0	18.7	15.0	9.7	11.7	7.4	10.1	3.2
부동산	31.8	0.5	5.5	0.5	-2.6	5.7	8.8	5.5	3.1	0.0
전문·과학및기술	71.0	1.4	0.1	0.3	2.1	4.2	6.9	2.7	3.2	1.9
사업시설관리 등	47.7	2.3	-9.9	-11.7	-3.8	5.3	5.5	5.3	5.5	0.2
교 육	106.0	-0.4	-4.7	-3.9	0.2	2.9	4.7	3.3	0.8	0.3
보건및사회복지	94.3	8.1	1.4	-0.4	0.8	3.0	2.4	3.1	3.7	0.8
예술·스포츠및여가	21.7	0.8	-32.6	-33.3	-18.0	20.6	34.9	18.3	11.7	4.8
협회·수리및개인	32.1	-1.6	-8.2	-10.4	-1.8	0.3	8.0	-3.6	-2.4	2.2
수도·하수및폐기물	11.4	-0.4	3.3	2.3	0.5	6.1	6.6	6.3	5.2	-1.3
- ICT서비스업	-	3.5	4.9	3.4	4.3	4.5	4.4	3.6	5.3	7.5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6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2.2% 증가

○ 지난 6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에, 제조업에서 전월과 달리 감소세를 보이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하락(2.3% → 2.2%)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3개월 만에 소폭 감소 전환(0.4% → -0.2%)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4개월 만에 증가(-0.2% → 1.0%)하고, SOC·기타서비스의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2.9% → 2.7%)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약간 확대(6.6% → 7.0%)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2.3% → -2.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5.0% → 7.6%)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7.6% → 7.9%)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에도,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10.3% → 8.7%)와 교육서비스(2.3% → 1.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7.7% → 6.1%)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전체 규모 증가세도 둔화(4.6% → 3.9%)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7%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전 산업	27,123	26,904	26,952	26,369	27,467	26,365	26,923	27,214	27,550	27,637
전년동기비	1.1	-0.8	-1.6	-1.4	2.3	-1.8	1.2	2.5	2.3	2.2
농림·어업	4.1	3.6	2.4	-0.2	0.2	2.7	-1.8	-0.2	-0.2	1.0
제조업	-1.8	-1.2	-2.4	-0.6	0.1	-0.6	-0.3	0.2	0.4	-0.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1.0	-1.7	-1.7	2.9	-2.3	1.7	3.1	2.9	2.7
건설업	-0.7	-0.2	2.2	1.7	7.0	1.4	4.7	7.3	6.6	7.0
도소매·음식숙박업	0.0	-5.3	-7.0	-6.9	-2.4	-7.3	-3.5	-2.2	-2.3	-2.7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7	-0.3	1.8	5.2	0.7	3.9	5.5	4.4	5.8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5	0.9	0.2	-0.4	4.3	-1.0	3.3	4.5	4.6	3.9
실업률 (계절조정, %)	3.8	4.0	4.3	4.4	3.7	4.0	3.9	3.7	3.8	3.7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7월 수출 29.6% 증가, 수입 38.2% 증가, 무역수지 흑자 18억 달러

○ 지난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9.6% 증가한 554억 달러, 수입은 38.2% 증가한 53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경기 여건의 개선과 함께 반도체와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에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유가 상승으로 석유 관련 품목에서 대폭적인 증가세가 이어지는 데다, 주요 지역들에 대한 수출이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4개월 연속 약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

- 수입도 원유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차산품 수입이 큰 폭 증가한 데다, 국내경기 회복과 함께 중간재와 자본재, 소비재 등의 수입이 동반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74.0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91.6% 상승한 반면에, 도입물량이 9.8%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은 72.7% 증가한 약 58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수출	5,422 (-10.4)	5,128 (-5.4)	1,419 (4.1)	1,464 (12.5)	1,568 (42.1)	537 (16.4)	512 (41.2)	508 (45.6)	548 (39.8)	554 (29.6)
수입	5,033 (-6.0)	4,676 (-7.1)	1,237 (-1.7)	1,362 (12.1)	1,490 (37.4)	496 (18.7)	508 (33.9)	478 (37.9)	504 (40.7)	537 (38.2)
무역수지	389	452	182	102	78	41	4	29	45	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7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13개 주력 품목 수출 동반 증가, 11개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율

○ 반도체 : 신규 CPU 출시에 따른 주요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 증설로 D램 등 메모리 주문 확대가 본격화되고, 모바일 시장에서의 견조한 수요

흐름과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데다, 친환경차·SUV의 수출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으로 對 중동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미국·EU 등 주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자동차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고, 인도 내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완화되는 데다, 국내 기업들의 신차 출시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세
- **선박류** : 해운 시황이 개선되면서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점차 증가하고, 특히 지난 7월에는 선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LNG선의 다수 통관이 진행됨에 따라 수출도 2개월 연속 증가세
- **디스플레이** : 국내 LCD 생산 감축에 따른 출하량 감소 영향에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LCD 단가 상승과 OLED를 장착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확대에 따른 OLED 수출 등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한 우리 기업들의 출고가 인하 등 가격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미국·중국 등 주요국에서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수출도 9개월 연속 증가세
- **철강** : 국내 공급 부족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강세와 글로벌 철강 수요 회복으로 인한 높은 수출단가 유지, 건설·자동차 등 전반산업 경기가 크게 개선되면서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
- **섬유** : 의류, 자동차 등 전방산업들의 업황이 개선되고, 중국산 일부 소재에 대한 제재 영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 미국과 아세안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제품** : 배럴당 65~75달러 범위의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국제유가 수준이 유지되면서 수출단가 역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 석유 수요 역시 점차 회복됨에 따라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화학**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 자재와 관련된 합성수지 수

요가 증가하고, 의료용 라텍스와 타이어 등 합성고무 수요 역시 꾸준한 데다,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에 따른 공급 능력 확대로 7개월 연속 증가세

- **일반기계** : IT기기 생산과 관련된 광학기기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데다,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로 선진권과 신흥권으로의 건설기계 수출이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해외 공장 가동의 일부 차질로 인해 국내 생산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미국·EU 등지에서의 경기 회복세,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OLED TV 시장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채택근무 등으로 소비자용 SSD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 재고 소진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기업용 수요 확대, 낸드플래시 적층 등 기술진보에 따른 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자동차	5.3	-13.1	1.1	31.5	74.8	15.2	73.4	93.7	62.5	12.3
자동차부품	-2.5	-17.3	3.8	5.6	123.2	12.5	99.9	182.2	108.2	35.0
선박류	-5.2	-2.0	32.1	28.3	11.9	62.8	14.4	-15.0	41.2	9.3
일반기계	-1.9	-8.9	-5.1	-1.4	21.3	6.1	17.1	25.7	21.4	18.4
철 강	-8.6	-14.5	-6.5	7.6	50.7	12.9	38.9	62.9	51.7	41.5
석유화학	-14.8	-16.4	-7.7	26.6	81.1	48.0	82.8	94.4	68.4	59.5
석유제품	-12.2	-40.6	-44.7	-16.5	110.7	19.2	99.7	168.5	80.1	73.0
섬 유	-8.0	-13.3	-6.6	-8.3	46.2	9.0	46.5	57.1	36.8	17.6
가 전	-3.8	0.7	19.2	15.8	66.5	18.0	69.3	89.4	47.6	29.7
무선통신기기	-17.6	-6.4	11.9	21.6	38.6	5.8	79.7	41.4	3.5	5.0
컴퓨터	-20.6	57.2	8.5	2.8	8.9	6.9	1.6	7.5	16.6	26.4
반도체	-25.9	5.6	18.7	14.0	29.7	8.6	30.2	24.5	34.4	39.6
디스플레이	-17.0	-12.2	17.8	16.3	36.0	-1.1	43.5	38.6	28.2	38.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7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부록	최근 글로벌 투자 동향과 향후 여건 점검
----	-------------------------------

한국은행(2021.7.23일)

- 최근에 글로벌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 회복과 함께 투자 확대가 향후 글로벌 경기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 지속성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최근의 호조 배경과 지속 가능성 검토가 필요

□ 최근 글로벌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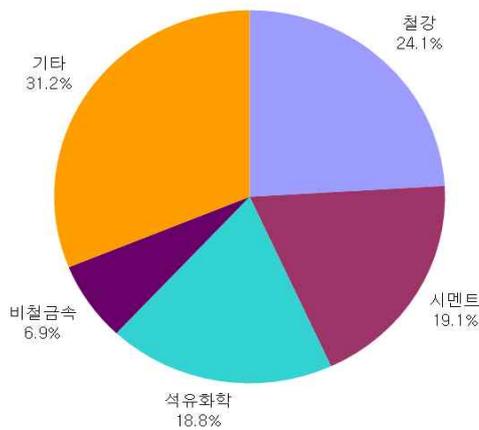
- 최근에 글로벌 투자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
 - (선진국)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수년간 부진을 겪었던 양상과 달리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는 1년여 만에 미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게 회복
 - 자본재 수입과 수주 등 각종 투자 선행지표들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유로존과 일본에서도 2분기에는 투자 회복세가 재개된 것으로 추정
 - (신흥국) 중국이 소비 중심의 성장 전략 등으로 투자 증가세가 올 들어 둔화되는 모습이나, 브라질과 인도 등지를 중심으로 비교적 빠른 증가세
 - 이러한 글로벌 투자 확대는 투자유발효과가 큰 제조업 경기와 상품교역이 2020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상품소비 증가에 따른 수출 호조가 투자 확대에 이어진 것으로 판단

□ 주요 여건 점검

- (전반적 여건) 글로벌 투자는 주요국들의 재정지출 확대와 경제활동 정상화, 저금리 환경 등으로 인해 당분간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
 - (글로벌 경기) 기업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기가 주요국들의 재정 확대와 경제활동 정상화 등으로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
 - 다만,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투자 확대 규모는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
 - (자금조달 여건) 저금리 환경과 활발한 M&A 시장,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 역시 비교적 양호한 모습
 - 최근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는 보유현금 증가와 투자 기대이익 증가 등을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주요 이슈) 향후 디지털 및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등으로 신기술 및 그린 투자가 글로벌 투자를 주도하는 반면에, 전반적인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수요나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석에너지 관련 투자는 다소 미진하면서 업종간 투자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신기술 투자) 향후 디지털 혁신 등으로 신기술 투자가 글로벌 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세는 큰 폭 확대 이후 점차 축소될 전망
 - 팬데믹 여파로 온라인 쇼핑과 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ICT기업들의 설비투자와 비ICT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공급 확대에 따른 투자수익률 하락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 (그린 투자)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그린 투자가 주목받고 있으나, 글로벌 투자의 양적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주요국들의 기후변화 및 성장전략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친환경설비 관련 투자 확대가 기대되나, 향후 에너지 투자는 탄소규제 강화에 따른 화석에너지 축소 등으로 감소세가 예상
- (공급망 병목 현상) 일부 원자재 및 부품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해당 품목의 투자는 확대되나, 글로벌 투자 증가를 견인하기는 난망
 - 최근의 병목 현상이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능력 부족보다는 일부 업종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원자재 및 부품의 조달 차질이 연관산업에는 오히려 투자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산업별 탄소 배출 비중 >



자료 : World Bank(2016).

< 원자재 품목별 가격 상승률 변화 >



자료 : 한국은행(2021.7.23.)에서 재인용.

□ 종합 평가

- 글로벌 투자가 주요국 재정지출 확대와 양호한 자금조달 여건 등으로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경기 개선 속도를 높이고, 신기술 및 친환경 투자도 주목받았으나, 글로벌 투자를 장기간 견인하기는 어려울 전망
- 신기술 투자는 공급 확대에 따른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장기간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며, 그린 투자도 화석에너지 투자 등의 대체 성격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투자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8.9)	(8.10)	(8.11)	(8.12)	(8.13)
 7월 소비자물가		 7월 소비자물가  7월 고용동향	 6월 산업생산	 6월 수출입통계
(8.16)	(8.17)	(8.18)	(8.19)	(8.20)
 7월 산업생산  7월 소매판매  7월 고정투자 ● 6월 산업생산(수) ● 6월 소매판매(수) ● 21.2분기 실질GDP (잠정치)	 21.2분기 실질GDP (수정치)  7월 산업생산  7월 소매판매	● 7월 무역수지(잠) ● 6월 기계수주  7월 소비자물가(수)	 7월 경기선행지수	● 7월 소비자물가  7월 생산자물가
(8.23)	(8.24)	(8.25)	(8.26)	(8.27)
	 6월 소비자동향조사	● 6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7월 내구재수주(잠)  8월 가업경기실사지수	 21.2분기 실질GDP (수정치)  금융통화위원회	● 7월 무역수지(수)  7월 개인소비
(8.30)	(8.31)	(9.1)	(9.2)	(9.3)
● 7월 소매판매(잠)  8월 경제제감지수	● 7월 산업생산(잠) ● 7월 실업률  8월 소비자물가예  8월 소비자신뢰지수  7월 산업활동동향	 7월 실업률  8월 ISM 제조업지수  8월 수출입통계	 7월 무역수지  8월 소비자물가  21.2분기 실질GDP (잠정치)	 7월 소매판매  8월 ISM 비제조업지수  8월 고용보고서